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빅테크 실적 경계감에 약보합 마감

- 미국증시 반등 하루만에 약보합 전환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유가 랠리..기업 실적 경계감도 고조
- 마감 후: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시간외서 하락

Summary

미국증시 실적 경계감에 약보합

7월 22일 수요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마감 이후 주요 빅테크-알파벳,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 장 중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인 끝에 소폭 하락 마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국제유가 상승세도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01% 하락한 52,218.58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14% 하락한 7,498.96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57% 하락한 25,690.90에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0.54% 하락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천 지수 역시 0.92% 하락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2.40% 하락, 16.64에 거래를 마칩.

(다우 -0.01%/ S&P500 -0.14%/ 나스닥 -0.57%/ 러셀2000 -0.92%)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2.29%, 소재 +1.45%, 에너지 +1.19%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고 빅테크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1.29%로 약세를 기록함.

지정학적 불확실성 여전..유가 3% ↑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으며 미국 역시 이란의 해협에서의 공격적 행동은 이란 내 민간 인프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함.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곡괭이 산’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이날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함. 여전히 양측의 강대강 구도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런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했던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전일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 것을 해운사들에게 경고했으며 위반 선박은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힘.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들을 향해 무전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 호르무즈에 이은 추가 운송로 봉쇄에 대한 우려를 키움. 한편 예멘군은 장 마감 이후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대상으로 정밀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사우디

측이 침략에 나설 경우 예멘군은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이런 가운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화 함. 이는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원자로를 건설하거나 사우디가 자국의 원자로용 핵연료를 직접 농축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사우디를 시작으로 중동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막으려했던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이 협정은 미국의 '이중 잣대'로 중동 국가들의 연쇄적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임.

실적 경계감 고조..마감 후 테슬라,알파벳 실적 발표

여닝 시즌을 앞두고 최근 다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시장 상승의 동력에 대한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었던 만큼 이날 마감 이후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내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렀음.

마감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가 전분기 실적을 발표. 알파벳은 핵심인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이 82%로 기대를 크게 웃돌았고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률도 30% 중반대로 1년 전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고 밝힘.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9억 5천명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 2분기 자본지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기록적 AI 인프라 투자가 클라우드와 AI 모델 사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은 확인. 다만 돈을 벌어주는, 핵심 캐시 카우인 검색 광고 매출이 예상을 소폭 하회했고 이런 가운데 자본 지출(Capex)은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해 Capex 규모는 2,050억 달러로 또 상향. 결국 AI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핵심 수익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Capex 투자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 실제 전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9억 달러로 마이너스 전환.

테슬라 역시 전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을 대폭 상회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매출 등도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도 예상을 상회. 다만 마진이 악화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를 기록, 향후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약세를 보임.

기다렸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에서 빅테크의 AI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함. 다만 투자가 이들 기업의 수익성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현재 이들의 자본 지출 확대에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만큼 이어질 빅테크 실적 발표와 현금 흐름 악화의 정도,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특징종목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대체로 약세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로 예정된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은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약세권에 머무름.

애플(-0.56%)은 인공지능 열풍으로 급증한 고성능 컴퓨터 수요를 겨냥해 맥 제품군을 전면 개편한다는 블룸버그의 보도에도 약보합 마감.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열고 새 갤럭시 Z 시리즈 3종을 공개. 2019년 폴더블폰 시장을 개척한지 7세대만에 라인업을 둘에서 셋으로 늘린 것으로 올해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라인업 확대에 대응한 것으로 읽힘.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을 반영해 신제품 출고가는 대체로 전작 대비 20만원 내외 상승.

아마존닷컴(-1.09%)은 AI 관련 조직 일부를 감원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특히 AGI(범용 인공 지능) 관련 사업부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짐.

SNS 중독 관련 소송 등의 이슈가 이어지는 메타 플랫폼스(-2.58%), 마이크로소프트(-1.86%) 등도 하락.

정규장 마감 이후 알파벳(-1.46%)과 테슬라(-1.30%)가 연이어 전분기 실적을 공개.

알파벳(-1.46%)은 핵심인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82% 증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가운데 전체 매출 역시 시장 기대를 상회.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되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읽힘. 클라우드 수주 잔고는 5,140억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률도 35.6%로 전년 20.7% 대비 큰 폭 개선. 다만 핵심 캐시카우인 검색 광고 사업의 매출은 17%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시장이 실적보다 주목했던 2분기 자본지출(Capex)은 449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AI데이터센터와 서버, 반도체 등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 회사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자본지출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제 올해 연간 Capex 규모는 2,05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치를 상향함. Capex 규모 확대와 클라우드 매출의 급증은 시장이 기다렸던 결과였지만 자본 지출 확대와 그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 매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는 인식으로 시간외 거래에서의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하락권에서 낙폭을 확대.

테슬라(-1.30%)는 지난 분기 차량 48만 126대를 인도해 1년 전에 비해 차량 인도 대수가 25% 성장했으며 분기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힘.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 성장했으며 최근 1년 매출은 사상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 에너지 저장 사업도 성장세를 회복해 최근 12개월 설치량은 최고치를 경신. 회사는 사이버캡 생산이 시작됐으며 'Tesla Semi'의 경우 올해 네바다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로봇택시는 미국 내 7개 주요 도시로 확대됐다고 밝힘. 다만 자동차 사업의 기대 이상 성장과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사업 흐름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2% 내외 하락.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5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과 매출총이익률도 전년 대비 악화. 잉여현금흐름도 감소. 향후

투자 지출로 인한 추가적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서버, 네오클라우드, 반도체 등 강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줄만한 이슈들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관련 해서 서버, 네오클라우드, 반도체 등의 관련 수혜 종목들은 강세를 유지함.

AMD(+1.45%)가 엔트로픽과 수 백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 공급 계약을 체결함. AMD는 이 계약을 통해 차세대 AI 칩을 공급할 뿐 아니라 최대 5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해 AI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평가.

오픈AI 역시 스타게이트 계획 이후 주춤했던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보를 재개. 오픈AI는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에 3.2GW 규모의 장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카멜리아'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이로써 오픈AI의 AI 연산 성능 관련 지출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됐는데,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오는 2030년까지 6,000억 달러로 추정했던 AI연산 성능 관련 지출 규모를 최근 7,500억 달러까지 상향했다고 보도하기도.

갖가지 우려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움직임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와 서버 생산 기업 등으로의 자금 이동이 유지된다는 의미.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AI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9.84%)는 총 마진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공개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의 20%대 급등에 이어 정규장에서도 급등했으며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호실적은 AI 서버 수요가 견조하다는 기대 확산으로 서버 업체 전반에 대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짐. 델 테크놀로지스(+9.32%), HP엔터프라이즈(+3.02%).

엔비디아(+2.30%)는 전일 자사 최대 고객들이 '베라 루빈' 기반 서버를 이미 도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차세대 '베라 루빈' 서버의 생산 확대 과정에서 공급 지연이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엔비디아는 오픈AI가 이번 분기부터 베라 루빈을 대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구글(-1.46%)과 코어위브(+3.85%), 마이크로소프트(-1.86%)와 메타 플랫폼스(-2.58%), 델 테크놀로지스(+9.32%)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컴퓨팅 수요가 증가해 엔비디아는 수혜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함.

이외 브로드컴(+2.67%), AMD(+1.4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0.99%), 퀄컴(+1.23%), 웨스턴 디지털(+1.51%), 샌디스크(+0.6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82%) 등이 상승.

다만 전거래일 12%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7%)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인텔(-2.68%),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88%)와 램 리서치(-0.84%)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 등은 약세 마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ADR 등의 메모리 반도체주는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 Capex 확대를 확인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자본지출 규모 확대의 지속성

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장의 해석이 옮겨가자 약세 전환하거나 상승 폭 축소.

유가 상승:에너지, 유틸리티 강세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의 이어지는 상승세는 증시에서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원전과 태양광 등의 대체 에너지 관련주 강세로 이어짐.

엑슨 모빌(+1.81%), 셰브론(+1.00%), EQT(+8.45%), 데번 에너지(+1.77%), EOG 리소시스(+0.39%), 코노코필립스(+1.10%), 옥시덴탈 페트로리엄(+1.77%) 등 에너지주가 대체로 상승. 넥스트에라 에너지(+1.68%), 듀크 에너지(+1.62%),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2.78%) 등의 유틸리티 종목들도 강세. 특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4.84%), 비스트라 에너지(+2.72%), 오클로(+0.84%), 카메코(+1.91%) 등의 원전 관련 종목들도 힘을 낸 하루.

이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업체 오클로(+0.84%)는 원자로 개발 업체 X-에너지(-2.03%)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데이터센터용 원자력 발전소 개발 가속화 계획에 참여한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음.

전력 설비업체 GE베르노바(-8.69%)는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지만 풍력 부문의 부진 등을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이외 특징주

존슨 앤드 존슨(+2.00%)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자사 로봇 수술 기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힘. 이로써 존슨앤드존슨은 연조직 로봇수술 시장에 진출하게 됨. 인튜이티브 서지컬(-2.68%)은 로봇 수술 시장의 헬스케어 대기업의 진입을 경쟁 심화에 대한 경계감으로 받아들여 약세.

AT&T(+3.50%)가 전분기 순증 가입자가 시장 기대 이상이였다고 밝힌 가운데 상승. 버라이즌(+1.17%)도 동반 상승.

로켓랩(+0.91%)은 미 공군으로부터 2억 6,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했으나, 스페이스X(-6.70%)는 랍업 물량 해제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전일의 반등을 뒤로 하고 하락.

소프트웨어 업체 페가시스템즈(-16.00%)는 전분기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하회한 가운데 급락.

클라우드스트라이크(-1.43%)와 세레브라스 시스템스(+0.59%)가 실시간 AI 기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약세 마감.

정규장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0.99%)는 기대를 웃도는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3% 내외 약세.

서비스나우(-6.47%)는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이익단에서 예상을 크게 상회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3% 내외 하락.

IBM(-2.25%)은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매출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잉여현금흐름도 시장 예상보다 적었지만 비용 관리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음. 연간 매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낮췄으나 2029년 양자 컴퓨터 출시 계획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힘. 다만 이미 잠정 실적 공개를 통해 시장이 소화하고 있던 내용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은 2% 내외로 제한적.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2.12%)은 항공료 인상이 연료비 부담 상쇄 효과로 반영돼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9% 증가했다고 밝힘. 다만 현재 진행 분기 순이익 전망을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3% 내외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브렌트유 94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분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감에 나흘째 상승.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폭격할 것”이라고 맞섬.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 역시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일 예정이며 이 ‘곡괭이 산’에 대한 타격 예정이라고 밝힘. 나아가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을 배치해 상선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와 홍해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는 유가 상승을 지지함.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95% 상승한 배럴당 86.8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9월물은 3.16% 상승한 배럴당 94.07달러에 마감.

국제 금 가격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와 그를 반영한 국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확인과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이 더해져 상승세를 유지.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85%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151.90달러를 기록. 은가격 역시 2%대 상승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함.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전일에 이어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분쟁 강화, 확산 움직임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도 이와 함께 높아져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함.

2년물 국채 금리는 3.6bp 상승한 4.2978%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6bp 상승한 4.6545%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1.4bp 상승한 5.1448%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는 35.67bp로 전일에 이어 단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영향을 반영해 축소

웜(베어 플랫). 2년물 금리는 장 중 4.313%까지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지난 5월 하순 이후 최고를 경신.

오후 들어 미 재무부가 실시한 20년물 입찰은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낙찰 수익률도 시장 예상보다 높아 금리 상승을 지지함.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주로 예정된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33%대로 전장 20% 중반대에서 높여 반영함. 오는 9월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도 70% 후반대로 역시 전장 대비 상승.

달러 가치 약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고조와 이에 대응한 ECB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전일 급락했던 엔화 가치도 이날은 소폭 반등,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6% 하락한 101.116을 기록.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480.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0원)를 감안시 2.90원 하락한 1,476.5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